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4. 2(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 1년간 무이자(대출이자 4% 범위) 파격지원	중소벤처기업과	
② **경북도, 수출유관기관 협력... 수출기업 살린다** 수출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다방면, 맞춤형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입통관, 무역보험 등 긴급 애로지원	외교통상과	
③ **경북도, 코로나19 취약한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고혈압·당뇨병환자 3,700여명에게 의료기기 무상 제공	보건정책과	
④ ㈜**톱텍, 코로나19 극복 위해 마스크 기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마스크 128,000장 기증	투자유치실	
⑤ **경북소방,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전국 3위** 도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5개 분야 평가지표 실적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소방본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4. 2(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벤처기업과		
		작 성 자	과 장	이 강 학	
			팀 장	김명제	주무관 신재선
		연 락 처	054-880-2681		

경북도,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 1년간 무이자(대출이자 4% 범위) 파격지원 -

경상북도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도는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

특히 무이자 기업자금지원은 예산부담이 큰데 코로나 피해 상황에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상의회장단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해 경북도는 4% 범위 내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내몰린 경북 중소기업에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 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

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단,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청서가 밀릴 것에 대비, 평상시 2배인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팜플렛이 비치되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다” 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www.gepa.kr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조원 (은행협력자금)

○ 사 업 비 : 4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1년 거치 약정상환)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4%)를 1년간 지원

* 대출금리가 4%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 기업

②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 중지 업체 등)

※ 지원대상 업종에 보건업,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절차

○ 14개 위탁은행 全지점 방문 대출협의 후 시군 신청·접수

대출협의 (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 (필요시) (신보, 기보) ⇒ 신청·접수 (시·군) ⇒ 융자 추천 (경제진흥원)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 협의 후 신청서에 상담확인 날인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취급은행

○ 농협 · 대구 · 국민 · 기업 · 산업 · 스탠다드차타드 · 신한 · 씨티 · 우리 · KEB하나은행 · 부산 · 경남 · 수협 · 새마을금고(대출가능 지점확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4. 2(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성자	과 장	박 노 선	
			팀 장	한영옥	주무관	임홍식
		연 락 처	054-880-2733		

경북도, 수출유관기관 협력… 수출기업 살린다

- 수출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다방면, 맞춤형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입통관, 무역보험 등 긴급 애로지원 -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역내 10여개의 수출유관기관과 협력, 긴급경영안정자금, 온라인 마케팅사업 추진 등 수출동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해 지난 2월 6일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한 KOTRA대구경북본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본부, 관세청 등 수출유관기관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수출중소기업지원 T/F팀을 별도 구성, 피해기업에 대한 일일동향파악과 지원책 마련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른면 3월말까지 총253개 피해기업 중 수출기업이 90개사, 수입기업이 163개사로 이중 수출은 주문감소 52건, 대금미회수 15건, 원자재수급 5건, 현지 통관 4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원자재 수급 155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 97개 기업에 527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운영자금, 고성장 촉진자금, 미래기업육성자금, 신시장진출자금을 지원하였거나 대출을 알선했다.

또한 8개 기업에 단기 수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기업에는 관세청과 협조해 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34개 기업에는 해외지사화, 시장조사 등 각종 수출정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와는 별개로 마스크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7억원을 지원받은 D사(구미)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OEM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의 생산중단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구미공장의 생산중단으로 공장라인을 멈춰야 할 실정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사(영천)를 비롯하여 화장품, 섬유업체 등 도내 22개사에는 통관, 수출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이와 병행하여 1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수출입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조사와 해외인증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인터넷몰 입점확대를 비롯해 사이버무역상담회 등 비대면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상황이 엄중하기에 긴급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피해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빠른 지원을 통해 수출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출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3~4)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해외마케팅팀(054-470-85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4. 2(목)】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주재형	주무관 손세정
		연 락 처	054-880-3807		

경북도, 코로나19 취약한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고혈압·당뇨병환자 3,700여명에게 의료기기 무상 제공 -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만성질환자 자가관리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자칫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 본인의 혈압·혈당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편성,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하면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고혈압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를 지급, 당뇨병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당계와 소모품을 지급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각 신청 가정으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특히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여 모바일 앱(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앱)을 통한 자가관리 등 보건소 및 동네의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에게 가정 내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도 둘 수 있고 본인의 혈압혈당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어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동네의원과 함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도 연계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4. 2(목)】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자	실 장	황 중 하	
			팀 장	장상열	주무관 임필규
		연락처	054-880-4621		

㈜톱텍, 코로나19 극복 위해 마스크 기부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마스크 128,000장 기증 -

㈜톱텍(대표이사 이재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스크 128,000장(1억 9천만원 상당)을 2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경북도에 기증했다.

㈜톱텍은 구미에 소재한 지역기업으로 공장자동화 설비 및 나노멤버레인 생산, 태양광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재환 ㈜톱텍 대표이사는 “㈜톱텍이 지역기업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마스크를 기증한다” 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톱텍이 지원한 마스크가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경북도는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종식시켜 도민과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4. 2(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 성 자	과 장	한 상 일	
			팀 장	박기형	주무관 신인휴
		연 락 처	054-880-6120		

경북소방,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전국 3위

- 도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5개 분야 평가지표 실적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경북소방본부는 소방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2019년도 수행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소방행정, 예방안전관리, 현장대응관리, 구급관리, 현장활동지원 등 5개 분야 86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지표별 점수를 총 합산하여 전국 순위를 정하게 된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노후 구조·구급장비 개선, 화재현장 신속 출동 기반 조성 등 각 평가지표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 1,000만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민을 위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현장 대응 능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거둔 성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상북도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